



대안가정

통권26호 (계간) <http://www.daeanhome.org>

2. '해맑은아이들의집' 이야기
5.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혜윤이 칼럼
6. 자립역량강화교육을 다녀와서...
7.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8. 학습상담프로그램에서 만난 아이
9. 대안가정운동본부 방문기, 정기이사회
10.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T)
12. 상담현황 및 소식
14. 회비(후원)내역 및 재정 보고
16. 후원안내, 대안가정 알리미



▲ 해맑은아이들의집 즐거운 추석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9. 11. 20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알콩달콩 「해맑은 아이들의 집」 이야기

○ 의료서비스 제공

▶ 단비, 영찬 치과진료

8월 3일. 허만수치과에 방문했습니다. 영찬이는 충치치료를 했고, 단비는 선생님께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치아상태가 좋지 못하더군요. 단비는 부은 잇몸이 고름으로 가득차 있어 한동안 치료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요. 잔뜩 겁먹은 단비는 병원이 떠나갈듯 소동을 부리기 까지 해서 매번 무료로 치료해주는 선생님께 죄송스러웠답니다. "단비야! 치료가 무서운 네 마음 충분히 알겠지만 이모들이 조금 민망하더구나. 무서워도 조금만 용기를 내어주렴"



▶ 신종플루예방교육

9월 11일. 남구청에서 실시한 신종플루예방교육에 다녀온 윤숙이모가 아이들에게 신종플루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차트를 만들어 설명해주고, 설명한 내용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복습게임도 하고, 상품으로 예쁜 곰돌이 젤리를 주기도 했어요. 특별히 손 씻기에 대해 중점적으로 가르쳐준 윤숙이모의 노력으로 신종플루가 극성인 요즘, 우리집 건강신호등은 청색입니다.

▶ 병원투어

10월 14일. 남구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소화기정의학과소아과에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했습니다. 주사기를 보고 아이들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차오르더니 울기위해 소리를 내려고하자 접종이 끝나버려서 큰 소동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소변검사를 하면서 남자아이들은 중간에 멈추지 못해서 큰이모 손에 쉬를 하는 에피소드도 있고, 혈액검사를 통해 아이들 건강상태와 혈액형도 알아봤어요. 혜윤이와 단비는 B형, 영찬이는 A형, 도윤이는 O형!!!

▶ 안경잡이 단비

단비는 하얀 얼굴과 큰 눈이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 큰 눈에 문제가 있더군요. 근시, 원시, 난시, 사시 모든 것을 가졌어요. 해맑은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특수 제작한 렌즈로 안경을 했습니다. 렌즈 두께로 인해 지금은 비록 투박한 검은 빨테안경이지만 눈이 교정되면 예쁜 안경을 착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비 그동안 사시라서 짜려본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는데 빨리 교정되어 눈이 매력포인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 **건강하고 씩씩하게!**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이모들은 비상입니다. 신종플루가 유행이기도 하고, 호흡기가 약한 녀석들이라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무시무시한 검열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내복에 목수건, 양말까지 완전무장을 하고 자야해요. 변함없이 도움을 주시는 해맑은아이들의집 지정 주치의이신 소화 가정의학과소아과 백지현 원장님, 허만수치과의 허만수 원장님과 백세약국 전영주 선생님! 진료만 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도서와 영양제까지 물심양면으로 챙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가족 프로그램**

▶ **미리추석**

9월 30일, 해맑은아이들의집 명절나기 '미리추석' 아침부터 송편을 만들고 전도 부치고, 지글지글 기름 냄새 가득한 추석맛이를 했습니다. 기다리아저씨 이수형 이사장님과 이왕욱 목사님이 함께 해주셨지요, 기다리아저씨께서는 때때옷을 차려 입고 세배하는 아이들에게 배춧잎을 척척 주시더라고요, 또한 아이들에게 옷놀이의 룰을 알려주시면서 함께 놀아주셨어요. 아이들을 위해 아이스크림을 한 아름 사다주신 왕목사님은 언제나 그렇듯 아이들에게 인기만점입니다. 해맑은아이들의집 미리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는 말이 참 어울리는 날이었습니다.



▶ **유괴방지 및 생활안전 교육**

9월 12일, 19일, 유괴방지 및 생활안전 교육을 위한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와 백설공주를 구해주세요'를 관람했습니다. 한 시간 가량의 뮤지컬을 통해 낯선 사람 따라가지 않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재미있게 배운 우리 아이들. 공연을 보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이 아쉬워서 공원으로 놀러갔어요. 마음껏 뛰어놀고, 문구점에서 책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 **혜운표 하이라이스**

10월 12일, 혜운이가 그간 음식만들기를 통해 갈고뒸은 솜씨를 발휘하였습니다. 닭가슴살을 우유에 담궈 냄새를 없애고, 갖은 야채를 썰고, 하이라이스 가루를 물에 풀고~ 우리 혜운이 처음 칼 잡을 때만 하더라도 불안했는데 이젠 칼질도 잘하고 가스불도 잘 다루고 기특하죠?

▶ **퍼즐놀이**

도운이는 한글과 숫자퍼즐, 영찬이는 세계지도 위에 각 지역의 공룡분포도가 그려진 퍼즐, 단비는 세계국기와 국가명칭이 적힌 퍼즐, 혜운이는 우리나라 지도와 지역별 특산물이 그려진 퍼즐을 아이들에게 선물이라며 안겨줬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퍼즐을 가지고 이리저리 끼워 맞추기 시작하더니 저녁식사시간이 지나가는 것도 모르더군요.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진작 사줬어야 했는데 아이들에게 참 많이 미안하네요. 후...후...



○ **지역연계 프로그램**

▶ **청학동 캠프에 다녀온 혜운이**

8월 9일~15일, 6박 7일 동안 청학동 고목당캠핑에 다녀왔습니다. 쑥스러움 많던 혜운이가 처음 만난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거리를 가득 가지고 왔어요. 활쏘기를 하는 모습에서 천추태후가 생각날 정도예요. 다도를 배우는 모습에서는 제법 조신하기까지 합니다. 하얀바지를 입고 물놀이를 갔는데 언니들이 속옷이 보인다고 놀리는 통에 부끄러워 물속에 앉아있었다고 하더군요. “혜운아~ 내년에는 물놀이 갈 일 있으면 흰바지는 피하렴”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육활동

윤영준 자원활동가



유아체육을 시작한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대구에 있는 수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체육수업을 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해맑은아이들의 집 친구들입니다.

처음 체육수업을 할 때 서먹하고 낯설어 할 수도 있는데 먼저 반겨 주던 친구들 덕분에 첫 수업부터 즐겁게 체육활동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힘든 스트레칭에 킁킁거리고, 때로는 아파서 훌쩍이면서도 그날 수업분량을 모두 따라오고, 지금은 높은 타겟도 거뜬히 칠 수 있을 정도의 발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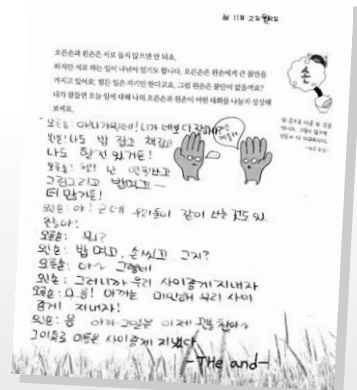
실력을 가졌답니다. 해맑은아이들의집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욱더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친구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지도해서 아이들과의 순간순간을 떠올리면 “그때 참 재미있었어”라는 생각이 드는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려합니다. 사랑하는 귀염둥이 혜윤이, 단비, 영찬이, 도윤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체육활동 시간 만큼은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신나게 놀자구나!! 아자! 아자!! ^^

혜윤이의 칼럼

혜윤이와 이모들이 서로의 생각을 알아가기 위해 조금 특별한 다이어리를 시작했어요. 주어지는 지문에 혜윤이가 상상력을 발휘하여 글을 쓰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되는 365일 글쓰기 다이어리! 혜윤이의 동의를 얻어 소식지에 담기로 했습니다. 다함께 동심으로 빠져보실까요?

지문 오른손과 왼손은 서로 돕지 않으면 안 되죠. 하지만 서로 하는 일이 나뉘어 있기도 합니다. 오른손은 왼손에게 큰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힘든 일은 자기만 한다고요. 그럼 왼손은 불만이 없을가요? 내가 잠들면 오늘 일에 대해 나의 오른손과 왼손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상상해보세요.

혜윤 오른손: 아! 니가 뭔데 니가 내보다 잘하냐?
왼 손: 나도 밥 잡고, 책 잡고, 나도 할 건 있거든!
오른손: 쳇! 난 연필 쓰고, 그림 그리고, 밥 먹고 더 많거든!
왼 손: 아! 근데 우리 돌이 같이 쓰는 것도 있잖아!
오른손: 뭐?
왼 손: 밥 먹고, 손 씻고... 그지?
오른손: 아~ 그렇네.
왼 손: 그러니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오른손: 응! 아까는 미안해!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왼 손: 응! 아까 그 일은 이제 괜찮아~
그 이후로 이들은 사이좋게 지냈다.





자립역량강화교육을 다녀와서...

해맑은아이들의집 작은이모 설윤숙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제4기 자립역량강화교육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냥 어리게만 느껴져서인지 자립이라는 말은 먼 이야기로만 생각했는데, 혜윤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모들의 생각과는 달리 겨우 열한살의 아이가 퇴소 이후의 모습에 대해 혼자 생각해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들도 혜윤이도 적잖게 충격이었지요. 때마침 상반기에 있었던 자립역량강화교육에 빛나이모가 다녀온 후 아이들의 자립에 도움이 될 여러 프로그램도 같이 구상해 보며 여름을 지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그룹홈을 비롯해 양육시설의 자립전담요원, 단기 및 중장기쉼터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당장 자립을 앞둔 아이들과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기를 '자립 직전의 진로결정도 중요하지만 사춘기 이전 자존감 회복과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였습니다.

'자존감과 생활습관'

자립 전 직업훈련이나 취업 후 직업을 유지함에 있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중도탈락하거나 자립을 포기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생활습관 역시 자존감을 바탕으로 자기를 가꾸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생활의 기술'을 가르칠까 고민했었는데 순간 멍해졌지요.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아이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조건적인 사랑, 전폭적인 지지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할까 생각해 봅니다. 또 살을 맞대고 웃음과 눈물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을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한창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은 자립의 첫 주춧돌을 놓는 과정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해맑은 아이들의 건강한 자립, 아이들이 우리로 인해 자신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에게 특별한 그 '한' 사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 한 아이가 그 특별함을 발견하기까지는 비단 양육자들 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분들의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야겠지요. 누구보다도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질 아이들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 이수형 이사장

아이들에게 키다리아저씨로 불리는 인기만점 이사장님! 합리적이고 섬세하면서 온화함을 함께 지닌 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할 때 참 아름다워보이는 이사장님이 있기에 대안가정은 든든합니다.



🏠 김명희 사무국장

보여지는 이미지에서는 강함이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 국장님! 일명 '큰엄마'로 불리죠~ 일할 때는 추진력 강하고 에너지도 넘칩니다. 요즘 열심히 공부중이신데 내년에 개봉박두! 기대합니다.



🏠 정민경 상담팀장

사려 깊고 다정다감한 현모양처감(본인은 달갑잖아 하지만). 계획성 있게 꼼꼼하게 챙기는 성격으로 대안가정운동본부의 모든 일을 안정감 있게 관리합니다. 내년에는 결혼할 듯한데 미리 축하해주셔도 될 듯...



🏠 고빛나 팀장

해맑은아이들의집 큰이모! 어디를 가더라도 큰소리와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분명하고 부드럽게 상대와 소통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설윤숙 보육사

작은 체구와 양증맞은 말투, 유머러스한 제스처가 사람을 자꾸만 웃게 만드는 해맑은아이들의집 작은이모!! 넓은 안목과 흐름을 파악하는 직관, 일에 대한 추진력이 더해져서 멋지게 날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



🏠 남근희 보조선생님

근희이모는 두 눈이 수줍게 휘어지는 선한 미소가 매력적입니다. 동글동글한 눈에 발그스름한 볼이 아직 어린 소녀같습니다. 배려와 양보가 가득하고, 굶은일도 마다치 않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분이랍니다~



학습상담프로그램에서 만난 아이



김명희 사무국장

아이야

혼자서 그 모진 세월을 지나온 조그만 아이야
참 씩씩하고 의연하게 잘 살아냈다고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는 오히려 외로웠겠구나.
막막한 현실 앞에서 지원군 하나 없이
무지막지하게 불어 닳치는 바람을 되받아치며
참 의연하게 잘 견뎌냈구나.

하고 싶은 게 그리도 많았건만,
또 누구보다 잘 할 자신도 넘쳐났지만,
너에겐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지.

한 철, 한 벌 옷으로 캠퍼스를 누비면서도
기죽는 법 없이 어찌 그리 당당할 수 있었니.
그러면서도 돈에 끌려 다니는 삶은 살지 않겠노라고,
온 몸을 던져 몰두할 수 있는 가치로운 일을
그리도 찾아다녔구나.

하지만 한 번씩 흔들리는 밤이면
네가 혼자서 울음을 삭이며
빨리 늙어 평온을 찾게 되길 기도하던 모습이
이제서야 생각나는구나.

참 아득한 시간을 지나왔구나.
그땐 언제나 그 지루한 시간의 터널을 다 지나갈지,
과연 그런 날이 오기나 할지,
그저 아득하기만 했지.

그런데 어느새 그 아득한 시간의 터널을 다 지나
평온을 찾았구나.
그리곤 바들바들 떨며 분노를 삭이던
그 시절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구나.

아이야

지금이라도 그때 못해본 것들
하나씩 다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겠니.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피아노도 배울 수 있지 않니.
너무 늦었다고,
다 굳은 손으로 되겠느냐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소리 없는 종이 건반을 두드리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너를 위해 조금씩 써도 되지 않겠니.

학습상담전문가교육 중급과정을 이수하면서 내가 만난 조그만 아이 이야기다. 수업 중 파워포인트에 내 프로파일이 떴을 때만 해도 호기심이 충만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 모두 내 프로파일을 보면서 안타까운 감탄사를 삼켰다. 주변의 지원은 거의 없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조그만 아이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아이는 너무나 당당했고, 자기 확신에 차있었으며, 가치로운 일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이었다. 도대체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토록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잊어버린 것이다. 강의를 진행하시는 소장님이 내게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파란만장했지요!”라고 대답하면서 가슴이 아렸다.

2010년에는 대구지역 대안가정(입양, 위탁, 아동그룹홈) 아동에게 ‘학습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실시할 이번 프로젝트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 15명과 양육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초에 따로 공지를 하겠으나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미리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방문기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3학년 박세진

사회복지학과 복수전공을 시작한 뒤 처음하게 된 인터뷰! 수업시간에 그룹홈에 대한 개념을 듣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겨서 그룹홈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사회복지사와 아이들 사이의 끈끈한 밀착 관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가족이 되고, 부모가 되어주는 것이 진정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때론 다투서 서운한 마음도 가지고 또 금세 화해하는 역동적인 생활을 보내듯이 그룹홈의 식구들도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룹홈은 흠이다' 라는 고빛나 선생님께서 인상 깊게 들으셨다고 하신 그 말은 제게도 가슴깊이 다가왔습니다. 사회가 그룹홈을 사회문제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따뜻한 가족으로 보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길 바랍니다.



정기이사회

9월 16일, 해맑은아이들의집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해맑은아이들의집 운영위원들도 함께 해 대안가정운동본부와 해맑은아이들의집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이사회라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모들! 대청소하느라 힘들었죠? 고마워요~



▲ 풍성한 중국음식으로 식사 먼저!



▲ 회의자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노고 갑니다.



▲ 해맑은아이들의집 운영위원으로 합류하신 경소희 교수님



▲ 열심히 자료를 보고 있는 그룹홈 이모들~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T)

10월 8일부터 6주 동안 '해맑은아이들의집'에서 AP지도자인 김명희 사무국장의 지도로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지역 아동그룹홈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함께한 이번 교육은 주 1회 매회 3시간씩 실시했으며, 총 9명의 그룹홈 실무자가 참가했습니다. 자신을 열고 매회 열심히 교육에 임해주신 그룹홈 선생님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또 매번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신 '해맑은아이들의집' 고빛나, 설윤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나눕니다.



▲ 비디오 자료를 시청하며 그룹홈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나누며 격려합니다.



▲ 교육이 끝나고 맛있는 식사~



▲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을 잘 활용한다면 집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겠지요.



▲ 다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해 보겠다는 우리 선생님들!



▲ 함께 사진을 찍으며 6주간의 아름다운 향해를 마칩니다. 모두 화이팅!



교육 후기

♥ 성예진(에덴그룹홈)

부모교육을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과의 진솔한 나눔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의 실천을 통하여 아이들과 제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그룹홈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 설윤숙(해맑은아이들의집)

사랑을 갖고 인내하는 것을 가르쳐준 APT 부모교육, 애들아! 이모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잘 해보자.

♥ 임정희(에덴그룹홈)

부모교육은 아이들을 지도하던 그 동안의 방식들을 되돌아보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고 끊임없이 격려하며, 기를 꺾지 않고 올바른 양육법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나의 계발과 환기를 통해 나 스스로와 아이들 모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조진영(들꽃마을여학생)

아이와 마찰이 있었고, 그 이유를 몰라 계속 반복되었는데 아이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게 되면서 일어난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것을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잔소리부터 했던 나는 아이에게 '정중한 부탁'을 하는 기회를 점점 늘여가고 있고, 부탁해서 끝나는 일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 거기에서 끝을 내는 좋은 결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이와 나를 위해서 더 공부하고 실천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 고빛나(해맑은아이들의집)

아이들의 문제상황에 직면하면 어느 순간 나의 문제가 되어 고민과 자괴감이 종종 들었어요. 또한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상처받아 작은 문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특성상 문제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생활했던 나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부담됐는지 모른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APT 교육을 통해 모두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조금씩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안아줄 수 있는 멋진 이모가 되고 싶어요.

♥ 박수경(사랑의집)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에게 실행하기 보다는 저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말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대하게 되며 한 사람 하사람 존중하게 되었어요. 잔소리 보다는 이해를 먼저 하게 되어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고, 아이들과 많은 대화를 하여 얼굴을 찌푸리는 일 보다는 웃는 날이 더 많아 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하며 행복하답니다. 교육과정이 끝나더라도 처음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가졌던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래요. 함께 교육받은 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간식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신 해맑은 선생님 두분 사랑합니다. 김명희 국장님 덕분에 좋은 교육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순정(들꽃마을남학생)

교육을 통해 '늘 든든한 산처럼 곁에 있어주고 기다려 주리라'라는 그 동안 잊고 지냈던 초심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아이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은 없었는지, 실패가 두려워 아이들의 일을 대신 결정해 준 것은 아니었는지... 먼저 저를 되돌아 볼 수 있어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토대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상담현황

♣ 상담내용별 현황

월	상담내용		대안가정상담			지원상담			기타	계	아동권부모만남	신규신청가정	신규의뢰아동
	아동위탁의뢰상담	신부모상담	대안가정선생상담	양육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연계						
1월	11	28	3	14	16	-	-	2	74	1	1	2	
2월	6	10	1	10	7	-	7	4	45	-	1	2	
3월	1	8	3	17	6	-	1	3	39	1	1	1	
4월	-	16	-	22	-	2	1	7	48	2	1	-	
5월	15	18	-	16	8	-	3	3	63	4	-	1	
6월	10	11	-	4	4	-	4	4	37	2	-	3	
7월	1	19	1	8	3	-	4	13	49	3	1	1	
8월	3	14	1	23	4	-	1	6	52	2	1	2	
9월	8	22	-	27	1	-	4	11	73	3	-	5	
10월	8	16	-	20	6	4	3	63	63	6	-	5	

♣ 상담유형별 현황

월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웹상담	기타상담	계
1월	61	11	1	-	1	74
2월	42	2	-	1	-	45
3월	33	1	4	-	1	39
4월	40	5	3	-	-	48
5월	51	6	4	-	2	63
6월	29	7	-	1	-	37
7월	43	2	2	-	2	49
8월	49	2	-	1	-	52
9월	65	4	1	1	2	73
10월	58	4	1	-	-	63

■ 본부소식

· 학습상담전문가교육 수료 (2009. 9. 5~6)

김명희 사무국장이 연우심리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학습상담전문가 중급교육을 수료했습니다.

· 직원교육 (2009. 9. 15)

직원교육은 대안가정운동본부와 해맑은아이들의집이 함께 했습니다. 학습유형검사와 진로탐색 기초진단, 성격유형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지 해석을 통해 청소년기의 성격유형과 성인기의 변화된 성격유형을 비교해 봤습니다.

· 정기이사회 (2009. 9. 16)

해맑은아이들의집에서 개최된 이사회는 사업 및 재정보고와 해맑은아이들의집 운영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임원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APT) - 그룹홈 실무자

부모교육 (2009. 10. 8~11. 11)

총 6회에 걸쳐 그룹홈 실무자를 대상으로 APT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이 그룹홈 실무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U&I 집단프로그램 워크샵 참석 (2009. 10. 24~25)

연우심리연구소에서 실시한 U&I 집단프로그램 워크샵에 김명희 사무국장이 참석했습니다.

·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2009. 10. 24)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정민경 상담팀장과 고빛나 팀장이 다녀왔습니다. 부모와 교육, 돌봄으로부터 소외되는 아동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아이들 소식

· 혜원이가아빠를 만났습니다 (2009. 9. 20)

오랜만에 혜원과 아빠가 만났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빠가 보고싶었던 혜원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올해가 가기전에 또 아빠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다혜가엄마를 만났습니다 (2009. 10. 25)

다혜가 엄마에게 아빠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놀랍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혜 많이 자랐죠?

■ 해맑은아이들의집 소식

· 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촉식 (2009. 8. 7)

해맑은아이들의집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8월 7일 남구청에서 위촉식을 했습니다. 운영위원은 박주희님(한겨레신문 기자), 이왕욱님(나눔의교회 목사), 이태원님(경일고 교사), 정소희님(대구대 교수)과 시설장인 김명희 사무국장 등 5명입니다. 흔쾌히 수락해주신 운영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영찬이가아빠를 만났습니다

(2009. 8. 24~27 / 9. 7~9 / 10. 1~5)

영찬이가 여름휴가와 추석연휴를 아빠와 보내고 왔습니다.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영찬이는 요리사이신 아빠가 카레라이스를 맛있게 만들어 주셨다고 싱글빙글거리며 자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 도윤이가엄마를 만났습니다

(2009. 8. 25 / 10. 16~18)

도윤이는 엄마와 동화책도 읽고 엄마가 해준 맛난 음식도 먹었습니다. 도윤이와 엄마는 헤어질 때면 엉~엉~ 울었는데 이제 활짝 웃으며 인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실무자 모임 (2009. 9. 3)

빛나이모와 윤숙이모가 실무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룹홈만의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을 향한 열정으로 뽕뽕뽕친 대구경북지부 그룹홈선생님들 모두 파이팅!!!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의 신입종사자

보수교육 참석 (2009. 9. 8)

신입종사자 보수 교육을 윤숙이모가 다녀왔습니다. 아동정서교육에서는 아이들의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 대해, 후원자개발에 관한 강의에서는 실제적인 후원자의 모집부터 적극적인 프로포절에 관해 실제 사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 단비가 친척을 만났습니다(2009. 10. 1~5)

단비가 추석연휴 동안 큰아버지댁에 다녀왔습니다. 친척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려고 애썼다는 단비가 참 대견합니다.

· 혜운이가아빠를 만났습니다(2009. 10. 2~4)

추석을 맞아 혜운이가 아빠와 함께 큰집에 다녀

왔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조카들이 혜운이에게 고모라고 불렀다고 자랑스러워하더군요. 성묘를 가서 사마귀를 잡은 혜운이의 무용담은 피나스릴 있었어요.

· 남근희 보조선생님을 소개합니다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남근희 선생님이 해맑은 아이들의집과 함께 합니다. 아동 상담파일 정리 업무를 도와주시고, 화려한 음식솜씨도 뽐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모들은 행정업무와 아이들과의 정서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얻었어요. 근희이모! 잘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석(2009. 10. 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고빛나 보육사가 참석했습니다. 위기대처법과 상담기법을 배우고 돌아온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생활하면서적용해볼 거라는 욕심에 벌써 마음이 들떠었습니다.

·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대구경북지부

대표자 모임 (2009. 10. 9)

은새그룹홈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그룹홈 대표자 모임에 김명희 시설장과 고빛나 보육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룹홈의 행정적 지원 문제에 대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아동 · 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 (2009. 10. 9)

한국복지인력개발원 주체로 실시된 아동·청소년 맞춤형 권리교육에 빛나이모가 다녀왔습니다. 가장 취약한 아동복지를 위해 고민하고, 아이들이 사회에서 바른 성원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정서적 지원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였습니다.

· 자립역량강화교육 참석 (2009. 10. 20~2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자립역량강화교육을 윤숙이모가 다녀왔습니다. 2박 3일동안 자립프로그램의 구상과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 회비(후원)내역 및 재정 ·
회비(후원)내역 및 재정

■ 3/4분기 회비 및 후원 내역

(2009년 7월~9월)

이사회비

김규원	90,000
배성우	90,000
배승근	90,000
송광익	240,000
이병희	150,000
이수형	600,000
이왕욱	300,000
이태원	150,000
정영숙	150,000
차학태	150,000

정회원 회비

고 석	30,000
권일섭	30,000
김영희	60,000
김봉섭	30,000
우병걸	150,000
이국진	30,000
이재용	60,000
이춘희	60,000
장중호	90,000

후원회원 회비

(주)대원포장기계	60,000
(주)신화기계	60,000
(주)월성	90,000
(주)TCN대구방송	150,000
(주)TCN대구계이불방송	100,000
도고건축사무소	120,000
동우회회원	30,000
동진산업	60,000
메리츠재단대구보생서비스센터	471,000
강경희	30,000
강한우	60,000
고정민	15,000
고효민	15,000
곽운섭	30,000
권경아	30,000
권다영	60,000
권영학	30,000
권영활	15,000
권용한	15,000
권응추	300,000
권점숙	30,000
권정애	30,000
금지경	60,000
김기구	30,000
김경현	30,000
김광미	30,000
김광연	30,000
김기발	15,000
김길중	30,000
김낙원	30,000
김덕겸	30,000
김영국	30,000
김명희	10,000
김미자	30,000
김봉구	30,000

김상기	15,000
김수득	30,000
김순자(13)	30,000
김순자(15)	10,000
김쌍호	150,000
김영남	15,000
김영범	10,000
김영태	30,000
김영학	90,000
김원희	30,000
김은기	30,000
김은형	30,000
김의룡	30,000
김재수	30,000
김중환	30,000
김중열	15,000
김진석	30,000
김진수	30,000
김창규	30,000
김현애	15,000
김현익	30,000
김호근	15,000
김환준	30,000
김효선	60,000
나일용	90,000
류보현	15,000
류정열	60,000
문옥희	30,000
문우경	30,000
박기호	60,000
박나연	30,000
박동영	30,000
박동준	30,000
박만근	30,000
박문욱	20,000
박미경	30,000
박미영	30,000
박병수	30,000
박성실	30,000
박성천	30,000
박송민	15,000
박순우	90,000
박신연	30,000
박연희	60,000
박욱란	30,000
박유민	15,000
박은진	30,000
박임순	30,000
박진구	30,000
박창현	90,000
박혜숙	90,000
배명식	30,000
배성훈	60,000
배태순	60,000
백기웅	30,000
백석환	30,000
삼성목, 금형산	30,000
서경희	60,000
서진천	150,000
손병혁	10,000
송계무	40,000
송창섭	30,000
신은정	30,000
심형순	15,000
안이정선	30,000

양재원	30,000
양창근	20,000
오찬현	15,000
오현주	30,000
우극현	90,000
우연조	30,000
위희탁	30,000
유은주	40,000
유정욱	30,000
윤순영	30,000
윤정희	30,000
윤완수	30,000
이 답	150,000
이 창	60,000
이금련	30,000
이내호	150,000
이동욱	60,000
이동진	60,000
이동환	30,000
이미선	30,000
이미숙	30,000
이병호	15,000
이상배	90,000
이성희	30,000
이순임	30,000
이승미	30,000
이신자	30,000
이연생	60,000
이영찬	15,000
이영희	30,000
이옥화	30,000
이유미	15,000
이일영	20,000
이재수	30,000
이정현	10,000
이주용	30,000
이지연	30,000
이철훈	20,000
이혜영	30,000
이혜진	15,000
이호용	60,000
임영진	30,000
임익성	15,000

임진규	15,000
장경은	30,000
장경철	30,000
장삼철	90,000
장윤미	30,000
장호덕	30,000
전규만	30,000
전영평	30,000
전재현	50,000
전제혁	120,000
전준환	30,000
정경란	60,000
정미옥	120,000
정용성	30,000
정재국	30,000
정한교	10,000
경태경	30,000
조영교	30,000
조정차	30,000
주은비	30,000
채승욱	30,000
채종해	30,000
최경호	20,000
최병훈	60,000
최원창	90,000
최정숙	30,000
최흥태	60,000
하정욱	60,000
한미숙	60,000
한은희	30,000
허만우	300,000
허유희	30,000
허해정	30,000
홍경자	30,000
홍종표	30,000

해피빈 후원금 44,700

그룹후원

강안숙	20,000
김미경	40,000
김상진	20,000
김영범	40,000
대백선교문화재단	450,000
김이숙	50,000
류지창	30,000
서대원	20,000
신경숙	30,000
이은경	30,000
정재석	30,000
한임숙	20,000
허영은	60,000

특별후원

이병희	10,000
-----	--------

물품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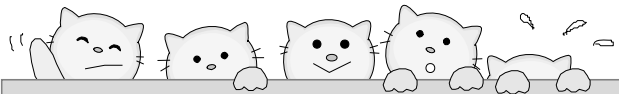
박승분	수박
신복성	포도1상자
이수형	사과2상자
황현준	음료수

그룹 물품후원

나형진	도서 2권
신복성	포도1상자
이왕욱	반찬, 사과

일반후원

김영명	100,000
신한아름인포인트	118,640
이마트단체지원	58,776
한국이동청소년그룹협의회	100,000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입금하신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약 5일 소요)
- 회비 및 후원금은 가능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대구은행 계좌도 사무국에서 자동이체 신청절차 대행이 안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주세요. (인터넷 뱅킹 또는 지점방문)

■ 사무국 재정보고

(2009년 7월~9월)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회비		10,666,000	사무비		11,711,810
회비		10,666,000	인건비		9,256,870
이사회비		2,010,000	급여		8,160,000
정회원회비		540,000	상여금		450,000
후원회원회비		8,106,000	사회보험부담금		646,870
특별회비		10,000	업무추진비		70,000
후원금		1,692,116	기관운영비		50,000
후원금		1,692,116	직책보조비		20,000
일반후원금		422,116	운영비		2,384,940
그룹홈후원금		800,000	여비		424,620
일일호프		470,000	수용비		859,720
			공공요금		230,880
			제세공과금		625,820
			차량비		172,000
			잡비		71,900
			재산조성비		328,970
			시설비		328,970
			자산취득비		328,970
			사업비		1,757,440
			일반사업비		1,757,440
			상담사업		21,160
			교육사업		516,000
			대인가정지원		774,100
			출판홍보사업		446,180
			전출금		2,100,000
			전출금		2,100,000
			그룹홈전출금		2,100,000
총계		12,368,116	총계		15,898,220
2/4분기 이월금		11,726,213	잔액		8,186,109
합계		24,094,329	합계		24,084,329

■ 아동그룹홈 재정보고

(2009년 7월~9월)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전입금		2,100,000	사무비		11,722,219
전입금		2,100,000	인건비		9,301,209
법인전입금		2,100,000	급여		8,365,000
후원금		20,000	상여금		375,000
후원금		20,000	사회보험부담금		561,209
일반후원금		20,000	업무추진비		920,000
보조금		5,520,682	기관운영비		920,000
보조금		5,520,682	운영비		1,501,010
생계비		5,520,682	여비		70,600
잡수입		4,558	수용비		836,630
잡수입		4,558	공공요금		289,780
예금이자		4,558	제세공과금		90,000
			회의비		134,000
			차량비		80,000
			재산조성비		162,460
			시설비		162,460
			자산취득비		162,460
			사업비		6,009,435
			운영비		2,477,670
			생계비		1,668,170
			수용기관경비		158,290
			피복비		338,910
			특별급식비		235,300
			의료비		77,000
			교육비		750,360
			도서구입비		73,750
			학습지원비		168,000
			학용품비		265,320
			기타교육비		243,290
			사업비		2,781,405
			프로그램사업비		2,781,405
총계		7,645,240	총계		17,894,114
2/4분기 이월금		22,047,735	잔액		11,798,861
합계		29,692,975	합계		29,692,975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신한은행 : 100-018-271549

아동그룹홈 '해맑은아이들의집'은 5명 내
외의 아동과 2명의 선생님이 가족공동체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또 하나의 대안가정입
니다.

예금주 「해맑은아이들의집」

대구은행 : 140-12-001469

지로로 납부하시려면

1.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발송하는 지로용지로 은행에서 납부
2. 인터넷 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지로번호 : 6307008)

대안가정이 궁금하세요? 불러만 주세요!

찾아가는 『대안가정 알리미』

대안가정?? 좋은일 같은데, 막상 내가 도울 건 없는 것 같으시나요?

대안가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

대안가정운동에 참여하는 첫걸음입니다.

단 한명도 좋고, 수 백명도 좋습니다.

계모임, 동창회, 동아리 등 각종 소모임 설명회에서

학교, 교회, 기업 등 대규모 강연까지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동료, 가족들과 함께

세상의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보세요!

※ 알리미를 부르시면 대안가정 부모를 위한 지침서 「대안가정 길잡이」를 드립니다.



* 문의 : ☎ 053-628-2592